



나눔의 ‘설’ 커지는 ‘福’

설 앞둔 불교계 자비행 활발

조계사 1200명 떡국나눔

부산산 바자회열고 보시

탈북민 합동차레도 눈길

노덕현 · 하성미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불교계의 자비나눔행이 활발하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월 16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해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떡국 나눔을 진행했다.

이날 떡국나눔을 위해 조계사 측은 방앗간에서 직접 떡을 공수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센터를 찾아 행사를 준비했다. 조계사가 준비한 떡국은 총 1200인분으로 주지 지현 스님과 봉사자들이 반찬 배식부터 떡국 전달까지 진행했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1월 22일 서울 종로구 내 한부모지원시설과 장애인시설,

보육원 등과 종로구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소외 이웃 1000가구에 떡국 떡 1.5kg과 초코파이를 전달했다.

부산지역에서는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이 1월 20일 부산진구청장실을 방문해 관내 장애인, 독거어르신,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총 3000만원에 달하는 쌀 10kg 910포대를 전달했다.

부산사하불교연합회(회장 법인)도 1월 14일 부산사하구 사하사암무료급식소에서 떡국나눔을 진행했다. 사하구불교연합회는 떡국 떡 200인분으로 점심공양을 마련해 대접했다. 떡국떡은 연합회 회원 스님뿐 아니라 한우리요양병원 등에서 십시일반 모은 것이다.

회장 법인 스님은 “이곳을 찾아주시는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계속 밝기를 바란다”며 “올해 모두 행복하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범어사 어린이청소년법회 회원들이 작장마을 경로당과 각 가정을 방문해 고향의 어르신 20명에게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1월 16일 떡국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쌀 총 20kg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어린이청소년들이 직접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월도)는 1월 17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제30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을 열고 한부모 및 다문화세대, 독거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떡 등 다양한 설 용품과 함께 설맞이 자비성금 5000만원을 후원했다.

군산 성흥사(회주 송월)는 1월 16일

군산교도소에서 합동 설차레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합동 설차레에는 교정위원장 송월 스님과 함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군산사암연합회 소속 스님 및 불자들이 참여했으며, 교도소 수용 500여명이 참여해 차레를 올렸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관에서도 설명절을 맞아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부산 용호종합복지관(관장 이춘성)은 1월

21일 남구 관내 소외계층 400세대에 떡과 과일, 생필품을 전달했으며, 22일 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전통 윷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복주머니 판매를 통해 수익금을 전달했다.

화성 서부노인복지관(관장 안효미)도 1월 9일 복지관에서 이용 어르신 200여명을 대상으로 떡국을 대접했다. 또 1월 13일 세대소통작은음악회를 열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설명절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월 22일 분관 무악센터서 200여 어르신들에게 떡국 나눔을 진행하며, 경로당 60개소에 쌀과 꽃감 음료등을 전달했다. 또 600여 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에게 식품키트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설 당일의 합동차레와 행사도 열린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법원)는 1월 25일 오전 10시 2층 큰법당에서 설 합동차레를 진행한다. 국제선센터는 2013년부터 종교에 관계없이 명절마다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해 합동차레를 개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연혁

노무현 정부

- 2007년 12월 12일 발의
- 2008년 2월 12일 상정
- 5월 29일 제17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이명박 정부

- 2011년 12월 2일 권영길 의원 등 10명 발의
- 2012년 5월 29일 제18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11월 6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 발의되나 2016년 제19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2013년 2월 12일 김한길 의원 등 51명 발의
- 4월 15일 보수 기독교계 집단 협박 및 항의로 본회의서 철회
- 2013년 2월 20일 최원식 의원 등 12명 발의
- 4월 24일 보수 기독교계의 압력으로 본회의서 철회

박근혜 정부

- 2014년 10월 9일 UN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문재인 정부

- 2017년 2월 13일 대통령 후보 시절 보수 기독교계와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 발표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스님들 무기한 기도회

격주 목요일마다 정부청사서

인종, 종교,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무기한 기도회를 이어간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해찬, 이하 사노위)는 1월 1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기도회’를 열었다. 앞으로 사노위는 격주 목요일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한다.

지난 2007년 12월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제18, 19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이어졌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집단 협박과 항의로 수차례 철회됐다.

이날 스님들은 염불기도와 율동 퍼포먼스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 부처와 국회에 촉구했다.

사노위원장 해찬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해 평등, 사해 일미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도회를 시작한다”면서 “차별금지법이 하루 속히 제정돼 누구도 차별과 멸시 혐오를 받지 않도록 가피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원행 스님, 군장병 첫 十善戒 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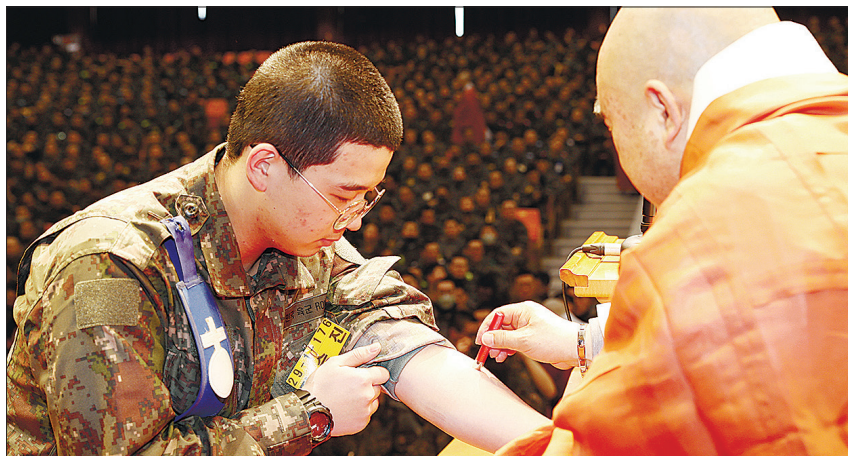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서

군종특별교구 3000명 법회

2020년 경자년 새해 군장병들을 위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새롭게 마련한 십선계가 처음으로 수계됐다. 첫 수계법사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나섰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해자)는 1월 11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 십선계 수계법회’를 훈련병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봉행했다. 십선계 수계법회는 기존 오계 중 장병들이 외박·휴가기간 중 불음주를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불음주를 제외한 4계에 해당·이간질·탐욕 등을 급하는 6가지를 더한 세속인이 지켜야 할 십선계를 도입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군장병들에게 십선계를 하나씩 설한 뒤 수계공덕으로 일평생 행복한 삶을 살길 기원했다.



원행 스님이 훈련병 대표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최근 군법당에서는 향 연비가 아닌 도장 연비가 이뤄진다.

원행 스님을 비롯해 20여 명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국장단스님들은 장병들에게 연비하며 십선계를 지키며 참된 불자로 거듭날 것을 기원했다. 이에 장병들은 합장한 채 “삼귀의를 하고 십선계를 받은 저희들은 이 공덕으로 삼악도와 팔난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일을 성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군종교구장 해자 스님과 각 군군승법사를 비롯한 군종교구 관계자들

은 계룡대 3군본부 영외법당 신축불사를 위해 백만원씩 결집불사 약정금 3억6500만원을 원행 스님에게 전달했으며, 원행 스님은 호국 연무사 격려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수계법회에는 원행 스님과 해자 스님, 김인건 육군훈련소장, 김한태 육군부사관학교장, 군종병과장 이정우 법사 등이 함께했다.

논산=윤호성 기자

상월선원, ‘방함록序’ 복원·공개

용상방·방함록서, 해거 스님 직접 정리·취조

지금은 사라진 선원 방함록의 서문이 복원돼 공개됐다.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도감 해일 스님은 1월 15일 경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월선원 동안거 소임을 적어놓은 ‘용상방(龍象榜)’과 ‘방함록서(芳篋錄序)’를 공개했다.

용상방과 방함록서는 조계종 대종사인 해거 스님(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이 직접 내용을 정리하고 글을 썼다.

이날 눈길을 끈 것은 ‘방함록서’다. 방함록은 안거 대중의 인적 사항 등을 적어두는 기록으로, 방함록서는 방함록 서문으로 사찰 연혁과 특징, 안거대중, 발원 등이 담겨있다.

과거 개별 사찰에서 방함록을 작성할 때에는 이 같은 서문이 포함됐으나 현재는 실전됐다.

도감 해일 스님은 “11월 11일 결제 이후 해거 스님을 찾아뵙고 용상방과 방함록 작성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언젠가 등을 통해 9명 스님들의 용맹정진을 존한 스님은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셨다”면서 “용상방은 선원이 제공한 자료



도감 해일 스님이 방함록서를 공개하고 있다.

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하셨고, 방함록서는 스님께서 어릴 적 봤던 것을 복원해주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원된 ‘방함록서’는 상월선원의 설립 배경과 의미, 계승 등을 한 선행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내고 있다.

해일 스님은 “수좌 정묵 스님이 선원 이름을 짓고 종정 진제 스님께서 현판을 내려주셨다. 이번에는 해거 스님께서 용상방과 방함록서를 정리해주셨다. 여러 어른들의 도움으로 여법한 결사 도량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2월 7일 회향까지 결사가 원만회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김해출발 인천출발 베트남/타이항공

미얀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169만원 (실속호텔)
>>185만원 (특급호텔)

마하연 상품 POINT!

- ✓ NO 옵션!
- ✓ 까바이 "마정수기"
- ✓ 헤호 "방생법회"
- ✓ 바간 "마차" 탑승
- ✓ 특식 제공
- ✓ 상품 가격 (호텔·행사·식사-타사비교 필수)

대한항공 직항

국내선4회 탑승까지 더해진 더 편안한 여행으로 다녀오세요~

>>179만원 (실속호텔)
>>195만원 (특급호텔)



20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동반
마하연 여행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 933호
www.mahayeon.com

문의전화 02-365-7747